



정전 60주년, 1,000명의 사부대중이 평화를 함께 노래하다.

제3회 통일음악예술제 봉행, 9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 제3회 통일음악예술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불교충지종 제3회 통일음악예술제가 9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봉행되었다.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전국에서 1,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꽉 채웠다. 입장을 하지 못한 일부 관객들은 극장 로비에 마련된 대형 TV를 통해 중계되는 화면으로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진각종 회장 통리원장을 대신해

사회부장 덕정정사, 보문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금주 스님, 대승종 총무원장 윤남 스님, 삼륜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BBS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종립 동해중학교 장재계 교장, 대한민국 지킴이 불교도 총연합 특별보좌관 이원중,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장세동, 송령호 이사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동참하였다.

효강 종령 예하는 화상 법어를 통해 “우리는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무연대비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진리입니다. 심오한 연기의 이치를 하루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 이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상부상조의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 그러면 행복과 평화의 물결이 넘쳐흐를 것입니다.”며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서원했다.

봉행위원장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음악이 여러 약기가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소리를 내듯이, 오늘 음악제를 통하여 화합과 조화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와 남의 차별이 없는 동체대비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대자대비심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의 염원을 담은 음악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맑고 한기롭게 하여 사회 대통합과 평화통일의 시계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아름다운 법음을 통한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전 교도를 대표해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서원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서면으로 보내온 축하사에서 “우리 사회가 단결과 반목이 아닌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써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화합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시대적 평화통일에 대한 사명과 종교적 발심으로 개회하는 소통과 화합의 통일음악예술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법향이 되기를 발원합니다.”며 충지종 통일음악 예술제가 사회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서원했다.

국회 정각회장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 정각회 부회장 강창일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이진복 국회의원은 축하를 보내왔다.

총3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서주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제1부 ‘여는 소리’부터 시작 되었다. 경쾌한 모듬북 타악 공연으로 무대를 열었다.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 원영석)가 충지종 서곡을 연주하고, 효강 종령 예하의 영상법어가 이어졌다.

제2부 평화의 소리는 북한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정행선의 향심,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퓨전 튜넷 비류티의 유 라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너의 오랜 꿈, 영화 레미제라블의 스타즈(Stars), 스크린 뮤직 등이 연주 되었다. 이어 소리꾼 김용우의 임진강, 장타령으로 무대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제3부 상생의 소리에서는 서주희 아나운서가 내외 귀빈들을 소개하고, 봉행위원장 충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가 무대에 올라 이번 행사의 취지와 동참하신 내외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130여명으로 구성된 충지종 전국 연합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졌다. 김양희 선생의 지휘로 연합합창단은 경사로다, 새로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강산, 창고, 충지종의 노래를 불러 동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충지종 연합합창단은 이어지는 커튼콜을 받았으며 불교계 최고의 실력을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승화 시켰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김종열 기자

불교충지종 제10회 어르신 큰잔치 봉행 단양 대명콘도에서 전국교도 약 800여명 동참



▲ 제10회 한마음 경로잔치(단양 대명콘도)

불교충지종 통리원은 경로 효친사상 실현과 교도 평생 복지의 구현을 위한 제10회 ‘한마음 경로잔치’가 9월 27일 단양 대명콘도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65세 이상 교도 800여명이 동참한 이번 어르신 큰잔치는 개회법회를 시작으로 실버 레크레이션, 사원별 장기자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법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에 도를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나니, 모름지기 부

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는 뜻입니다.”며 불퇴전의 수행 정신을 통한 즉신 성불 이루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오늘 법회는 보살님과 각자님들께서 ‘한마음 경로잔치’라는 주제처럼 법회기간 동안 함께 웃고 부처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자비로운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어 행사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행복과 자비의 웃음보따리를 가득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지종이 불교계 주요종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보살님과 각자님들의 지극정성 발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며 종단의

발전과 고락을 같이한 교도들을 위로 했다.

개회법회에 이어 실버레크레이션으로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코메디언 방일수씨의 사회로 각 사원별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24개 사원이 참가한 장기자랑은 충지종 교리를 바탕으로 한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각 사원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경로법회에 참가한 교도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영예의 대상인 총지상은 부산 자석사, 정진상은 부산 정각사, 원력상은 대전 만보사가 수상했다.

단양-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 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한 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82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충기 42년 10월 22일(화)~24일(목)

|장소| 거제 대명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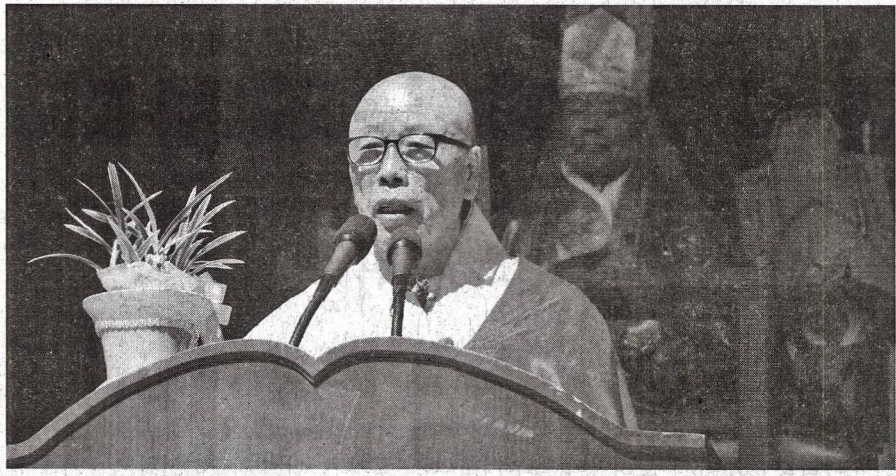
|대상| 종단산하 스승님 일동

불교충지종 통리원장



태고종 제25대 도산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

총지중 법등 통리원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 동참.



▲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취임사

태고종 총무원은 9월 26일 오전 11시 총본산 순천 선암사에서 제25대 도산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된 법회는 총지중 법등 통리원장,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천태종 도정 총무원장, 관음종 흥과 총무원장(종단협 사무총장)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 조계종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의원 진보당 김성동(순천지역구) 의원, 새누리당 이재우 의원, 조충훈 순천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 하였다.

태고종 종정 해초스님은 법어를 통해 " 화합으로 종단을 이끌고, 백년대계를 생각한 도제 양성과 종도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를 당부한다."며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종단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서원했다.

제 25대 태고종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도산스님은 취임사에서 "태고종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한국불교 제1종단의 위상을 구현하는 발전의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구태를 되풀이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며 종도들의 화합으로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자고 말했다.

스님은 "종도들이 주인이 되는 종단의 3가지 분야 8대 운영기조를 실천하겠다."라고 종단 개혁과 화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종단협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회부장 법광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 태고종, 도산 스님의 취임으로 한국 불교, 나아가 세계불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종단협과 조계종을 대표해 축하했다.

태고종은 이날 행사에 전국의 종도 2,000여명이 동참해 선암사 구석 구석을 매웠다. 날씨 또한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쪽빛 가을 하늘로 도산 신임 총무원장의 취임을 통해 종단 발전과 중흥의 밝은 앞날을 서원했다.

· 순천 선암사 = 김종열 기자

BBS 불교방송 “책 읽는 가을 남산길 산책”

불자 1,000명 동참



▲ 남산길 산책 출발식

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은 개국25주년, TV개국 5주년을 기념하는 “책 읽는 가을 남산 길 산책”이 불교 총지중, 진각종,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9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봉행되었다.

월호 스님, 법안 스님, 서광 스님의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산의 생태보전과 책읽기의 만남을 주제로 전기와 독서를 통한 명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정사,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불교방송 이재원 사장은 “불교방송 개국 25주년과 TV개국 5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포교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불교방송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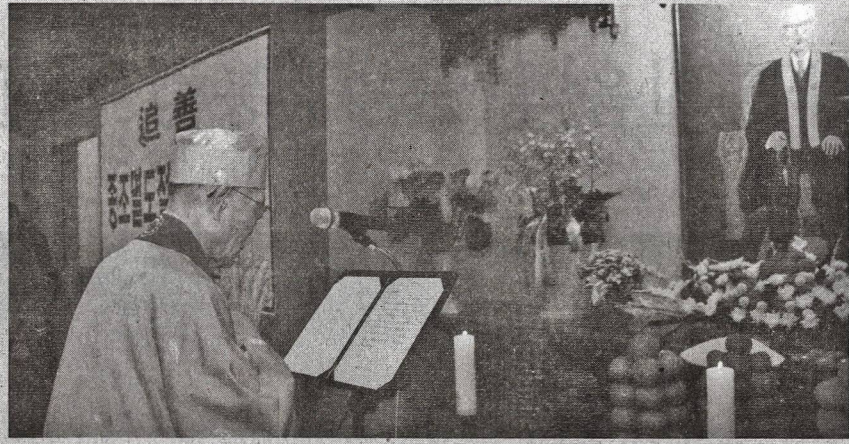
박원순 서울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인문학이 흐르는 서울의 정책 방안과 꼭 맞는 독서와 남산길 순례를 불교계가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산의 생태계 보전과 서울의 허파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며 불자들의 남산 보전운동에 감사를 전했다.

오후 4시 20분 만해광장 입구에서 출발식을 갖고, 왕복 3.2KM의 남산길 순례가 시작되었다.

동국대 만해광장=김종열 기자.

제33주기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9월 8일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동시 법회



▲ 추선사를 올리는 효강 종령 예하

제33주기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원정기념관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원정기념관에서는 서울, 경인 교구 스승과 교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과

교정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로 추선불사가 시작되었다.

종령 효강 대중사의 헌화와 훈향정공 후, 통리원장, 서울, 경인 교구 스승, 유가족, 교도들의 순으로 참배가 이어졌다.

종령 효강 대중사는 “법제자 효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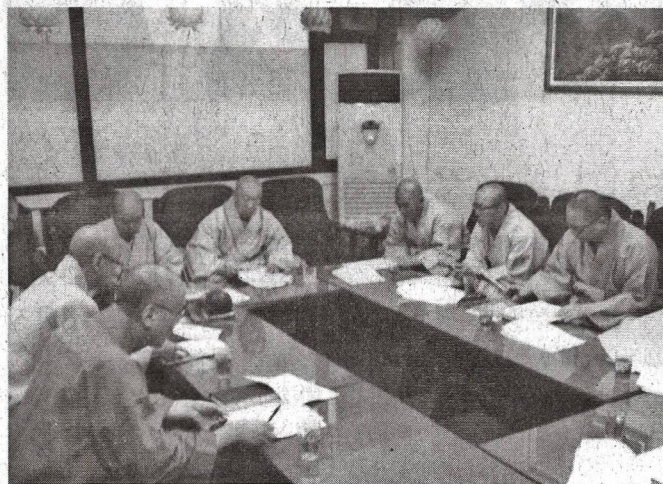
종조님 영위 앞에 삼가 고하나이다.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휘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먼일을 생각하오니 추모의 정을 금할 길 없이 오이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하옵고 이제 간소한 법식과 화과전을 이루었사오니 생존하실 때와 같이 감람하시와 흡향 하시옵소서”라며 추선사를 올렸다. 이어 정통 의례에 따른 추선불사의식이 집전되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종조이신 원정 대성사님의 제33주기 추선불사를 맞아 법회에 동참하신 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성사님의 종지와 종풍을 이어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며 동참 대중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원정기념관=김종열 기자

불기2557년 한국불교종단협 제1차 상임이사회

제16차 한.중.일 불교대회 참가 건 등 심의 결의



▲ 종단협 제1차 상임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는 9월 24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불기2557년 제 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흥파스님이 회장 자승스님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했다.

총지중 법등 통리원장, 법화종 해륜 총무원장, 원효종 함운 총무원장, 총화종 남정 총무원장, 진각종 덕정 총무부장, 천태종 월도 총무부장, 보문종 금주 기획실장 등 상임이사들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16차 한.중.일 불교대회의 준비사항 보고와 일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결의했다.

중국 남부 해남성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평화기원대법회와 교류위원회회의,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한 학술강연회, 축하마찬 및 『천인경 천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천인경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을 집단 학살한 장소로 지금은 비석만 남아있다. 종단협의회는 이곳에서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매나면 이국땅을 떠도는 유혼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할 예정이다. 총지중은 이번 대회에 3명의 참가자를 파견 할 예정이다.

종단협=김종열 기자

총지중보를 이웃과 함께 합니다.

구독신청 _ 불교총지중 통리원 전화 _ 02)552-1080 E-mail _ jukah@paran.com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무명씨	8/27	50,000
개천사	무명씨	8/27	30,000
개천사	이희권	8/28	10,000
개천사	무명씨	9/11	30,000
개천사	강순시	9/12	10,000
개천사	이희권	9/24	10,000
건화사	이연호	9/10	10,000
관성사	황성녀	8/28	10,000
관성사	박현숙	9/3	10,000
관성사	김병석	9/9	10,000
관성사	인선	9/23	20,000
관음사	신막심	8/28	10,000
기로대관		9/23	10,000
기로대자행		9/23	10,000
기로밀공정		9/23	10,000
기로법수원		9/23	10,000
기로법장화		9/23	10,000
기로법지원		9/23	10,000
기로불멸심		9/23	10,000
기로사홍화		9/23	10,000
기로상지화		9/23	10,000
기로수증원		9/23	10,000
기로총지화		9/23	10,000

덕화사	하순옥	9/2	5,000
만보사	박선희	8/30	20,000
밀인사	정정희	8/29	5,000
밀행사	석우성	9/3	20,000
벽통사	양정현	9/4	10,000
벽통사	양지현	9/4	10,000
벽통사	무명씨	9/7	10,000
벽통사	무명씨	9/7	10,000
삼밀사	오혜민	9/23	10,000
삼밀사	서령	9/23	10,000
선립사	심지장	9/17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9/13	30,000
수인사	정순득	8/26	10,000
수인사	김봉기	8/27	10,000
수인사	무명씨	8/28	10,000
수인사	정순득	9/10	10,000
승천사	원봉	9/13	10,000
승천사	지선행	9/13	10,000
시법사	선도원	9/23	10,000
실보사	조순애	8/26	120,000
실보사	이순옥	8/28	10,000
실보사	김임춘	8/30	10,000
실보사	조순애	9/23	60,000

실보사	이순옥	9/24	10,000
실지사	정경자	8/29	10,000
실지사	송우섭	9/3	5,000
실지사	정우석	9/3	10,000
우리사랑	나눔미		
	손경옥	9/18	5,605
운천사	반야화	9/6	10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8/26	30,000
일원어린이집	이준동	8/26	10,000
일원어린이집	하미영	8/26	10,000
일원어린이집	김지연	8/26	10,000
일원어린이집	이지민	8/26	10,000
일원어린이집	최복란	8/27	10,000
일원어린이집	서선숙	8/27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9/16	10,000

일원어린이집	9/25	10,000	
하명순	9/25	10,000	
일원어린이집	8/30	10,000	
이준동	9/11	20,000	
일원어린이집	9/17	10,000	
김지연	9/25	10,000	
정각사	김문수	9/12	30,000
정각사	구정희	9/13	10,000
정각사	김문수	9/13	10,000
정각사	박후휘	9/2	30,000
지인사	허성동	9/13	10,000
지인사	송효제	9/2	5,000
지인사	지성	8/30	5,000
총지사	법등	9/17	10,000
총지사	김병관	9/13	20,000
통리원	김지영	8/28	30,000
화음사	강순란	9/23	10,000
화음사	류재환		
흥국사	지정언		
원정언	김갑선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제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실지사 법안정 보살 아들 박상오 군 농학박사학위 취득

아버지의 대를 이어 동물 생명과학 연구



▲ 박상오 군 박사학위 취득식

실지사(주교 범우 정사) 교도 법안정 보살의 아들인 박상오 군이 2013년 국립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동물생명과학

전공으로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멀리 춘천에서 서울 실지사로 다니는 법안정 보살은 평소 신심이 두텁고 용맹정진의 불퇴전의 자세로 수행정진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아들의 박사학위 취득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며 감사했다.

법안정 보살의 부군인 박병선 교수(강원대 동물생명공학과)는 이미 동물생명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동물 사료와 복지 분야 연구의 대가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물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입문한 아들 박상오 박사는 이미 대학원 재학시절 다수의 연구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등재하여 학위수여식에서 우수학술연구상을 수상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박상오박사의 학문적 발전과 개가를 전 교도들과 함께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한다.

불교총지중 원의회, 재단이사회, 중앙 중의회 연석회의 개최

불교총지중은 9월 11일 오후 2시 원의회, 재단이사회, 중앙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원장 범등 정사와 중앙중의회 의장 수현 정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석회의는 원의회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을 심의 토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구)국광사 토지 매매 및 활용 방안의 건, 실지사

신축 공사의 건, 기로원 활용의 건이 상정되었다.

유지재단은 과산 수련원 공사 진행 사항을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9월 행사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여법하게 진행하기로 다짐했다.

총리원-장동욱 과장

내곡보금자리 주택 신규 어린이집 수탁

복지재단 공공 어린이집 수탁 3개소로 늘어



▲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조감도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은 9월 10일 오후 4시 서초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 회의에서 위탁운영자로 최종 결정 되었다.

서초구 보육위원회는 서울시가 공공 개발 중인 내곡지구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설 서초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 결과, 재단의 공공성, 사업운영능력 등을 검토한 결과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의 운영능력을 인정하여 최종 운영자로 선정했다.

내곡 보금자리 A7BL 어린이집(가칭)은 서초구청과의 공식약정체결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교재, 교구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재단-김지영 교무

불교총지중 정책 수립 간담회

불사, 복지, 교화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불교총지중은 9월 10일 총리원장 범등 정사의 주관으로 원의회, 전국 교구장, 교구 신정회장들이 참석한 정책 수립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총리원장 범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사화 부장 지정 정사, 서울. 경인 교구장 범우 정사, 충청. 전라 교구장 환수원 전수, 부산. 경남 교구장 시정 정사, 대구. 경북 교구장 안성 정사, 서울. 경인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충청.

전라 교구 신정회 민순분 지회장이 참석 했다.

간담회에서는 종단운영과 복지, 수익 등에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범등 총리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의회와 중앙중의회를 통해 정책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교도들과 교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였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총리원 예방

군 포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환담중인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9월 13일 오전 제3대 조계종 특별교구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이 총지중 총리원을 예방했다. 정우 스님은 먼저 효강 종령 예하에

인사를 드리고, 불교 TV 설립 초창기 통도사와 총지중의 인연과 군포교에 보여주시는 열정에 감사드렸다. 이어 총리원장 직무실에서 총리원장 범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범등 총리원장은 "군 포교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정우 스님의 법운 융창하시기를 전 종도와 함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며 군종교구장 취임을 축하했다. 정우 스님은 "총지중과는 예전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교와 불교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며 공동 관심사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조계종 특별교구 군종교구장에 취임한 정우 스님은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여래사 등 대형 사찰을 창건하고 해외포교, 문화 포교에 역량을 다했다. 조계종 제10교구 교구본사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구룡사 회주로 있다.

총리원-김종열 기자

총지중 신임 종무원 교육 성료

종무원 기본 소양과 업무 교육



▲ 신임 종무원 교육수료 기념촬영

불교총지중 총리원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임 종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경남 교구 전상훈 교무와

총리원 백혜련 교무가 참가했다.

9월 9일 오전 9시 30분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된 교육 개강 불공에서 총리원장 범등정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통 밀교 종단 불교총지중의 종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업무를 잘 배워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종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교육에 임하는 종무원의 교육 성취를 서원했다.

이번 교육은 총리원 합숙 교육으로 총지중 입문, 종무원의 자세, 종단법규, 종조법설집, 불교입문, 불사의계, 종무행정, 정통밀교 등의 과목 이수과 총평 및 질의토론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아침, 공식, 저녁 불공을 매일 진행하였다.

9월 13일 2시 50분 종강불사를 마친 전상훈, 백혜련 교무는 앞으로 교구와 총리원에서 종무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서원했다.

총리원-장동욱 과장

종립 동해중학교 제46 주년 개교기념식 봉행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인재로 커가기를 서원



▲ 개교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이사장 지성 정사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9월 25일 오후2시 제46주년 개교기념식을 본교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이사장 지성정사, 이사 인선 정사, 학교운영위원장 겸 학부모회장 지미희 (3-4 최재준의 모) 외 학교운영위원 겸 학부모회 임원 4명, 총동창회

변현 사무국장 등 내외의 귀빈들이 참석했다.

이사장 지성 정사는 축사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도덕적 인간상 정립과 창조적인 가치관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를 기른다"

라는 교육목표 아래 동해중학교가 개교한지 벌써 46년이란 세월 속에 우리는 지역에 뛰어어난 인재와 훌륭한 학자, 능력있는 경영인을 양성해 왔습니다."며 지역 인재 양성 뿐 만이 아니라 세계인을 양성하는 명문사학이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장재계 교장은 인사말에서 "일반적으로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 수준, 선생님들의 자질과 열정, 그리고 재학생들의 생활 태도, 언어습관, 학력 수준 등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자질과 열정 그리고 재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생활 자세라 생각합니다."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향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근속 교사인 이춘민, 정종민 교사, 20년 근속교사인 김은경 교사, 10년 근속직원인 윤석영 사무직원이 근속상을 수상하였고, 2학년 김태원 군의 5명이 총지중 장학금을 수상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원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불교의 선정 22

사념처 수행

심념처(心念處)

마음은 무상한 것이지만 우리의 전도된 생각으로 마음은 항상 불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마음의 무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심념처의 법문을 말씀하셨다. 심념처는 일종의 자기 감시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의 자기 마음의 실상을 관조하여 마음의 연기성, 무상성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해탈하는 수행이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청정한 것
심념처 수행으로 원래 자리 찾아야**

불교의 심법은 심식을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식의 6식으로 나눈다. 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5식을 전5식(前五識)이라고 하며 마지막의 의식을 제6식이라고 한다. 의식이 앞의 5식을 총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마음[心]이라고 한다. 여기에 말라식과 아뢰아식을 더하여 8식으로 부른다. 말라식과 아뢰아식은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팔식이 마음의 주체로서 심왕(心王)이라고 하며 여기에 심왕을 따라 같이 작용하는 종속적인 마음의 작용을 심소(心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심소는 마음이 갖추고 있는 작용, 성질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 상, 촉, 작의(作意) 등이 포함된다. 심은 심소와 떨어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늘 몇 개의 심소와 일체를 이루고 심소 또

심념처를 통하여 관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혹은 의식으로서, 우리의 현재의 마음이 탐진치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인지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 마음이 산란한지 등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즉, 마음으로써 마음을 보는 것이 된다. 여실하게 현재의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마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여 지금 당장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그것을 따라 잡을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피상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 참고 욕심이 나도 절제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가도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렇지만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왜냐 하면 자기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결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세밀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심내고 이기적이며 질투하고 비겁하며 위선적인 자기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꺼린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이것을 감추려고 한다. 심념처 수행은 이러한 습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우리의 진실한 내심을 들여다보아 그 실체를 분명히 자각하고 결점을 고쳐나감으로써 성격상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마음이 으쓱거리거나 위축됨이 없이 단지 주의를 기울여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해야 하며 거기에 집착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마음을 바라보면 모든 마음은 생겼다가 잠시 머문 다음 사라져버리는 지극히 무상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보리는 자기의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
사념처 수행은 현대인들에게 더욱 중요**

마음의 모든 변화 과정을 살피다 보면 언제나 존재하는 관찰자가 있는 듯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무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꾸준한 연습에 의하여 분명하게 보이는 듯한 이 관찰자마저도 함께 함께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도 함께 일어났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관찰자도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마음의 무상성이며 무자성의 모습이다. 하나하나의 마음은 잘나 생멸로서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으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일체 만물이 불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 사물의 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느끼지만 자기 마음의 무상성은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집착하여 모든 번뇌를 만들어 낸다. 인간 사회의 모든 갈

사물의 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느끼지만 자기 마음의 무상성은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집착하여 모든 번뇌를 만들어 낸다.

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심과 심소는 항상 상응하여 같이 일어난다. 심, 즉 마음과 의식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이며 마음 가운데의 탐욕이나 성냄 등이 곧 심소이다.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청정한 것이지만 각종 탐, 진, 치의 모든 번뇌가 연기법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탐진치의 번뇌는 원래부터 갖추어진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은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통하여 원래 청정한 마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 심념처의 수행은 마음의 본성이 청정함을 깨닫는 순수한 경험이며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음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스스로를 관조하며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의 특질을 이용하여 우리는 어떤 한 순간의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심소에 반영하는 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심념처의 포인트가 되는 관심(觀心)으로서 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살피고 분석하여 컨트롤하는 것이 심념처의 목적이다.

**마음의 실상을 관찰하여
탐·진·치와 위선, 질투, 이기심을 극복**

**심소의 관조-16종심
마음을 바라보며 보는 자마저 사라지게**

《대념처경(大念處經)》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탐욕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마음에 진애나 우치가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산란한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등 마음의 모든 작용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분명히 알아차린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대념처경》에서는 우리가 살피야 할 마음 상태로서 탐욕과 무탐, 진심과 무진심, 치심과 무치심, 수축심(收縮心)과 산란심, 광대심(廣大心)과 불광대심, 전일심(專一心)과 부전일심, 해탈심과 미해탈심의 16종의 마음을 들고 있다.

매번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되 '나'라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기에 자성이 있다고 알아서도 안 된다. 나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 혹은 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없이 지극히 객관적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머물고 소멸하는 과정을 살피야 한다. 마음이 청정하거나 오염되었거나에 상관없이, 또 거기에 따라

등은 수시로 변화하는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의 생각을 고정화시켜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정치나 종교, 사상의 대립과 갈등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고정된 생각에 얽매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의미 없고 무가치한, 본질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다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나무 저 나무로 까불며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원숭이에 비유하셨다. 특히 현대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산란하여 잠시도 자기 생각을 멈추어 바라보기가 힘들다. 멈추어 서서 자기의 마음을 관조할 수 있을 때 마음의 무상과 무자성을 철저히 깨닫고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념처 수행을 통하여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을 분명하게 보고 제어함으로써 마음을 원래의 청정한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된다. 밀교의 대표적 경전인 《대일경》에서도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 곧 보리'라고 하셨다. 자기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요, 해탈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심념처의 수행은 특히 더 중요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령**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지음

승속을 초월한 살아 있는 불교를 위하여...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한다.

불교총지중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저 | 불교총지중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시가 6,000원 (10권 이상)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6,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2013년 10월 19일 (토)
미사리 조정경기장 보조축구장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불교총지종 FC붓다

후원 불교서적총판(주)운주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금강신문, 연동산업, 아제여행사,
불광출판사, (주)다나, 미얀마문화원, 마하연투어,
청룡기획, 한국불교기자협회, 봉은사,
대한불교진각종

문의 불교총지종 02-508-8933 010-6661-3593
FC붓다 010-7339-8688



제10회 불교총지종 어르신 큰잔치 한마음 경로잔치



▲ 훈향 정공하는 효강 종령 예하



▲ 훈향 정공하는 법등 통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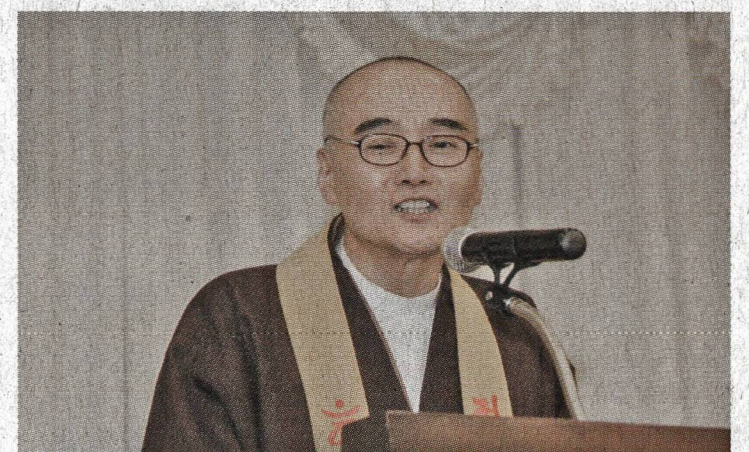
▲ 전국에서 동참하신 스승님들



▲ 입제불공 전경



▲ 법어를 하시는 효강 종령 예하



▲ 인사말을 하는 법등 통리원장



▲ 후원금을 전달하는 서울경인 김은숙 지회장



▲ 후원금을 전달하는 부산 경남 신인록 지회장



▲ 총지종 상조회 설명회



▲ 상조회를 설명하는 록경정사



▲ 교도들의 장기자랑을 관람하시는 효강 종령 예하



▲ 기로스승님들의 즐거운 모습



▲ 웃음으로 가득한 경로 잔치



▲ 실버레크레이션 동참



▲ 민속 공연단 관람

★ 사원별 장기자랑 ★



▲사회자 코메디언 방일수



▲1,2등 수상식



▲ 장기자랑에 즐거워하는 교도들



▲수인사



▲정각사



▲만보사



▲관성사



▲혜정사



▲관음사



▲총지사



▲자석사



▲성화사



▲시범사



▲법황사



▲운천사



▲밀행사



▲덕화사



▲백월사



▲밀인사



▲선립사



▲국광사



▲단음사



▲벽룡사



▲개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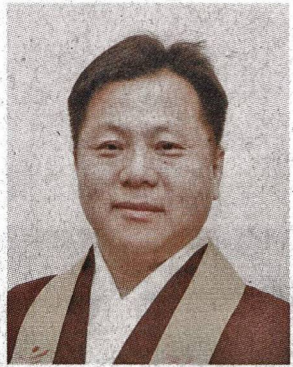
▲제석사



▲흥국사



▲지인사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지혜(智慧)의 화신(化身), 석가모니불의 좌보처 보살

대부분의 부처님과 보살은 '지혜(智慧)'와 '자비(慈悲)'·'보리심(菩提心)' 등으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지혜와 자비의 이름에서 벗어나는 불보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불보살이 자비와 지혜로 대변되는데 그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교화방편'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살로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있다. 문수보살은 응화신(應化身)인 석가모니불의 좌보처 협시보살로 지혜문(智慧門)을 담당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의 우보처의 협시보살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은 석가모니불을 오른편에서 모시고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德)을 말아보는 보살이며,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더불어 삼존불(三尊佛)을 이루는데, 흔히 흰 코끼리를 타고 합장하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이에 비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서 지혜의 칼을 들고 용맹스러운 사자 등에 올라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두 보살은 각기 지혜와 행원(行願)이라는 부처님의 두 가지 커다란 덕성(德性)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지혜와 실천을 통해 대승보살도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다.

묘길상(妙吉祥)의 보살로서, 보리심을 청정케 하고, 번뇌의 근원을 없애는 보살.

문수보살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만주쉬리(Mañjuśrī)'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소리나는대로 옮겨 '만수설리(曼殊室利)'·'문수사리(文殊師利)'라고 한 것이다. 문수(文殊)는 이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 '만주(Mañju)'는 '묘(妙)하다, 뛰어난다'는 뜻이고, '쉬리(śrī)'는 '좋다, 복덕이 많다'는 뜻으로 '길상(吉祥)'이라 번역한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묘길상(妙吉祥)' 또는 '묘덕(妙德)'이라 한다. 『대일경소』에서 설하기를, '문수(文殊)는 커다란 지혜이다. 이 지혜는 가장 뛰어난 공(空)의 지혜로써 보리심(菩提心)을 청정케 하고, 반야(般若)의 이검(利劍)으로써 번뇌의 근원을 잘라 없앤다'고 하였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묘길상의 문수보살을 다른 이름으로 '길상금강보살(吉祥金剛菩薩)'이라 부른다.

이외에도 문수(文殊)를 묘수(妙首), 보수(寶首), 경수(敬首)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수(首)'자가 들어간 것은 '쉬리'가 복덕(福德), 길상(吉祥)의 뜻 외에도 머리(頭)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문수보살은 주로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보살로서 초기 대승경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대승불교가 성립할 당시부터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일설에 의하면, 문수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나타나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반야의 진리를 펼쳤는데,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겨졌다고 한다. 이는 『반야경』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공(空)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설한 경일 뿐만 아니라 반야지혜가 부처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은 지혜의 완성을 상징하는 화신(化身)으로 묘사되는데, 지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집착과 분별이 사라지고 일체의 결람이 없어졌으므로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며 적정(寂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천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그 실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십선행 등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하나로 줄이면 삼업정정(三業淸淨)이 된다. 몸과 입과 뜻의 삼업(三業)을 잘 다스리므로써 청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청정만이 악업(惡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정(淸淨)을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도(道)를 구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생활 가운데 청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활 속의 불공이며 수행이다. 그 수행이 또한 진언연승에도 들어 있다. 청정한 생활로써 바른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육바라밀이나 삼업정정의 실천과 함께 문수보살의 진언을 아침저녁으로 외워볼 것을 권한다. '나막 사만다 보다남 아 베다비

문수보살 (文殊菩薩)



▲ 문수사리보살상

데 사바하(넌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 지혜있는 존(尊)이시여, 사바하.)

오른손에 칼 또는 경서(經書), 왼손에는 푸른색의 연꽃을……

문수보살은 머리에 5계(髻-상투)를 하고,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왼손에는 푸른색의 연꽃을 들고 있다. 이를 청연화(靑蓮華)라 한다. 그 연꽃 위에 오고금강저(五鉤金剛杵)가 올려져 있다. 오른 손의 칼은 지혜로써 번뇌망상을 단번에 끊어 없애 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연꽃 위의 금강저 또한 번뇌를 파쇄(破碎)하는 것을 나타낸다. 종종 오른손에 칼 대신 경서(經書)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경(經)은 부처님의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8)

말씀, 가르침이고 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경(經)은 곧 지혜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 대신에 경서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경서는 바로 공(空)의 지혜를 설하고 있는 '반야경'이라고 한다.

문수보살은 연화대(蓮花臺) 위에 앉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자 위에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자를 타고 있는 것은 위엄과 용맹을 나타낸 것이다. 즉 사자를 타고 용맹정진과 위엄있는 자태로 지혜를 얻고자 함을 나타낸 것이다.

머리 위의 5계(또는 5발)는 대일여래의 5지(五智)를 나타낸 것으로 비로자나 대일여래의 다섯 지혜가 곧 문수보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문수보살을 친견하면 곧 대일여래의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문수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출가보살의 대표적인 보살로, 특히 『화엄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마거사와의 '불이(不二)의 법문(法門)'에서 행한 문답(問答)이 유명하다.

우리나라 문수신앙은 신라 고승 자장에서 비롯

우리나라의 문수보살 신앙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신라의 고승인 자장(慈藏)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중국인들은 청량산(이를 오대산이라고도 한다)을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상주처(常住處)]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수행한 자장은 청량산 태화지(太和池)에 있는 문수보살상 앞에서 7일간 기도하여 문수보살로부터 사구계(四句偈)를 받았고, 이어서 한 노승(老僧)으로부터 이 계송에 대한 해석을 듣고 부처님의 발우와 가사를 받았으며, 여왕을 섬기고 있는 신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쉬이 침략을 받을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 나라를 편안하게 할 것을 부촉받았다.

이에 자장은 서기 643년(선덕여왕 12년) 신라로 귀국하여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웠고 그 노승으로부터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상주처라는 가르침을 받고 강원도 오대산 중원(中原)에 적멸보궁(寂滅寶宮)을 건립하여 오대산을 문수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삼았다. 그 이후 오대산은 조선조에 이르러서 세조가 중병으로 고생할 때 오대산 상원사(上院寺)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문수보살의 가피력을 받아 병이 낫게 된 뒤부터 문수신앙의 중심도량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이 자주 찾는 유명한 문수도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1 kg 25,000원
무료배송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면역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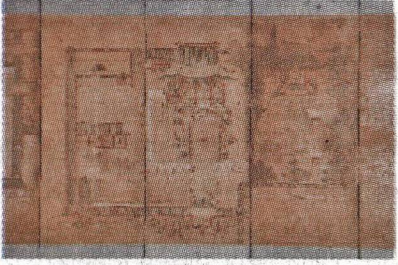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다시 우리시조 읽는

마음아 너는 어이

지은이: 화담 서경덕



▲ 조선시대 기로회도

마음아 너는 어이
늘 그렇게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소냐
아마도 너 쫓아 다니다가
남의 웃음 될 뻔하여라
마음아 너는 어이 외양에 저멋난다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소냐
아마도 너 쫓아 다니다가 남 우릴가 하노라

화담 서경덕은 어린 시절을 가난하고 변변치 않은 성장기를 보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탐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다. 결국 그는 조선 초기 유학에서는 획기적이다 할 수 있는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는 사상을 정립한다.

이 시조는 자신의 늙어 감을 몸과 마음을 대비해 표현한다. 그러나 마음은 몸에 비해 빨리 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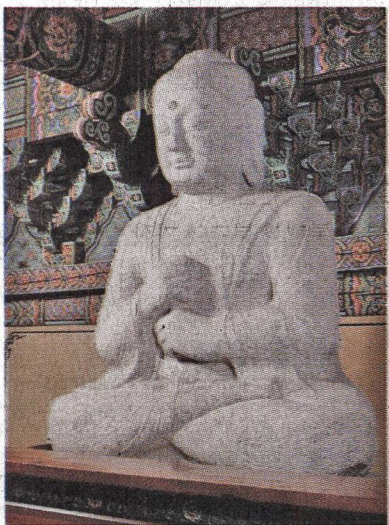
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언제나, 이팔청춘이라 생각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남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돌리는 수행자도 자신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법입니다. 자연은 생멸을 반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도 그 자연의 일부 일 뿐입니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30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金泉 靑巖寺 修道庵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438, 청암사
시대: 통일신라



▲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높이 2.51m의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으로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찰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이다.

민머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가 작지만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네모나며 풍만하고, 긴 눈·작은 입·평평한 콧잔 등에서 위엄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옷은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으며 옷 주름은 느슨하고 형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단정하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거구의 불상이면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특이한 손 모양과 함께 당시 시대양식의 반영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나타내는데, 위축되고 긴장감이 감소하며 탄력이 줄어든 점으로 볼 때 신라 말에 만든 작품으로 추정된다.

대적광전(大寂光殿)에는 통일신라(統一新羅) 하대(下代)에 제작된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 봉안되어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불타편 23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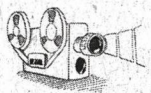
- 교훈: 신의·성실·정직
- 교목: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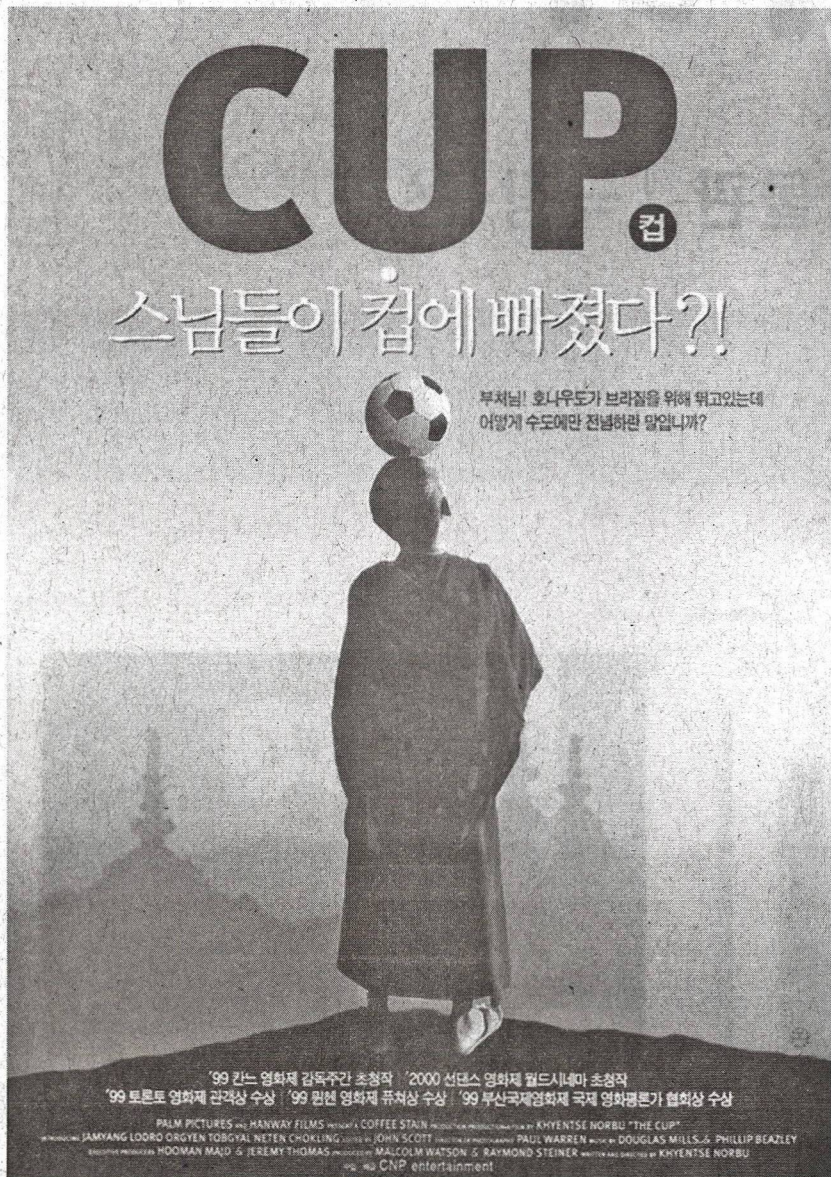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영화에서 불교보기 <30>

스님이 만든 불교영화, 색다른 설법 부탄 영화 <컵>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감성을 갖고 있는 영화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다뤘던 <독목맞은 여름>과 같은 영화에 목말랐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영화는 이런 목마름을 채워주기에 적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하고 순수한 정서가 지배적이고, 거기다 불교적 가르침이 있고, 완벽한 불교 영화였습니다.

<컵>(1999)이라는 부탄 영화입니다. 원제는 <phorpa>이며, 영어제목은 <The cup>입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축구를 소재로 한 불교영화입니다.

배경은 티베트 임시정부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의 어느 사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린 애들 승가학교입니다. 티베트나 부탄 등 라마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학교가 많습니다. 아이 때부터 한 곳에 모여서 착실하게 불교공부도 하고, 의식도 습득하고, 수행도 하면서 장차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활동하는 티베트 스님이 많은데 다들 이런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배출됐고, 불법포교에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영화는 티베트에서 니마와 팔렌이 사원으로 오면서 시작됩니다. 니마라는 소년과 팔렌이라는 청년은 중국 지배하에 있는 티베트를 탈출해서 사원으로 옵니다. 부모님이 달라이라마가 계신 곳에서 불법 배우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두 소년은 위험을 무릅쓰고 티베트를 탈출하여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기 위해 도착한 학교에서 그들은 뜻밖의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엄숙하고 경건하리라 예상했던 학교는 온통 축구광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토크메이트는 경전대신 스포츠잡지를 끼고 살고, 그것도 부족해 벽을 온통 축구 스타들로 도배했습니다. 사원은 '파라과이 이겨라' '독일 만세'와 같은 낙서들로 얼룩져있고, 엄숙해야 할 법회시간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지스님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 앉은 어린스님들은 축구 얘기로 수군거립니다. 팔렌과 니마가 왔을 때는 '8 프랑스 월드컵' 시즌이었고, 월드컵 열기는 이곳 승가학교에도 불어 닥친 것이었습니다.

팔렌과 니마는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혈 축구팬인 토크메이트 오기엔(재광 로도)은 팔렌을 꼬셔서 결국 마을로 내려가 월드컵 준결승전을 구경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월드컵을 시청했는데 너무 흥분한 오기엔이 떠들었고, 그래서 텔레비전도 끝까지 다 못 보고 쫓겨났는데 설상가상으로 호랑이 사냥꾼 게코스님(오르기엔 토브기알)이 이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게코스님에게 끌려간 이들은 한밤중 사원을 탈출한 죄로 정말 하기 싫은 식당 당번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기엔은 결승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로 또 내려갔다가는 사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을 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절에서 쫓겨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꽤 무모해 보이는 생각이었었는데 의외로 일은 잘 풀렸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암수한 축구 잡지를 꾸준히 보아오면서 그 열망을 이해했던 게코스님이 이 제안에 대해서 주지 스님과 상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주지 노스님을 설득하기 위한 게코스님의 설명은 매우 유머러스했으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지스님 : 월드컵이 뭐가?

게코스님 : 공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싸우는 것입니다.

주지스님 : 전쟁은 언제 벌어지나?

게코스님 : 오늘 밤 자정입니다.

주지스님 : 묘한 시간에 시작하는군. 싸워서 이기면 얻는 건 무엇인가?

게코스님 : 컵입니다.

주지스님 :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도 일어나나?

게코스님 : 그런 건 없는 듯합니다.

게코스님의 설명을 통해 어린스님들에게 무해하다고 판단한 주지스님은 마침내 텔레비전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빌리기 위해서는 인도인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기엔 일행은 다른 스님들한테서 돈을 각출해서 텔레비전을 빌리러 신나게 트랙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그들이 갖고 간 돈보다 50루피는 더 비쌌습니다. 돈을 더 구할 길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마침 니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니마에게는 티베트에서 넘어올 때 엄마가 준 회중시계가 있었고, 축구에 도취된 일행은 니마에게서 거의 빼앗다 시피해서 회중시계를 가져가 담보로 맡기고 텔레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오기엔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톱에 가시가 쏘인 것 마냥 찔렸었습니다. 시계를 빼앗긴 니마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계속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보다말고 오기엔은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칼과 자신이 또한 가장 아끼는 축구화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을 담

보로 맡기고 니마의 시계를 찾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게코 사냥꾼이 나타나 오기엔의 계획을 듣고는, "장사를 잘 못하는 것을 보니 장차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고 흐뭇해하면서 빗진 50루피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영화는 축구에 빠진 어린 스님들과 이들을 걱정하는 어른 스님들의 갈등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갈등은 티베트의 정치 현실과 스님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망명해 늘 집을 찢다 풀면서 오매불망 티베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주지 스님은 젊은 스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축구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주지스님에게는 이 모든 현상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공부하고 수행만 일삼아온 주지스님에게 지금의 스님들은 사회에 빠르게 몰드는 모습이었고, 자신이 그리워하는 티베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었기에 이 스님들이 이끌 어갈 미래의 불교와 미래의 티베트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약간씩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영화 말미에서 세대간 갈등은 조화롭게 마무리됩니다. 누구보다도 축구에 빠졌었던 오기엔은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결승전을 마다하고 타인의 아픔에 마음 아파하고, 또한 자기 것을 모두 내놓는 희생정신을 보여줍니다. 오기엔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비록 시간이 흘러 스님들이 현실문화를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사회와 타협하지만 불교의 근본마음인 자비심과 이타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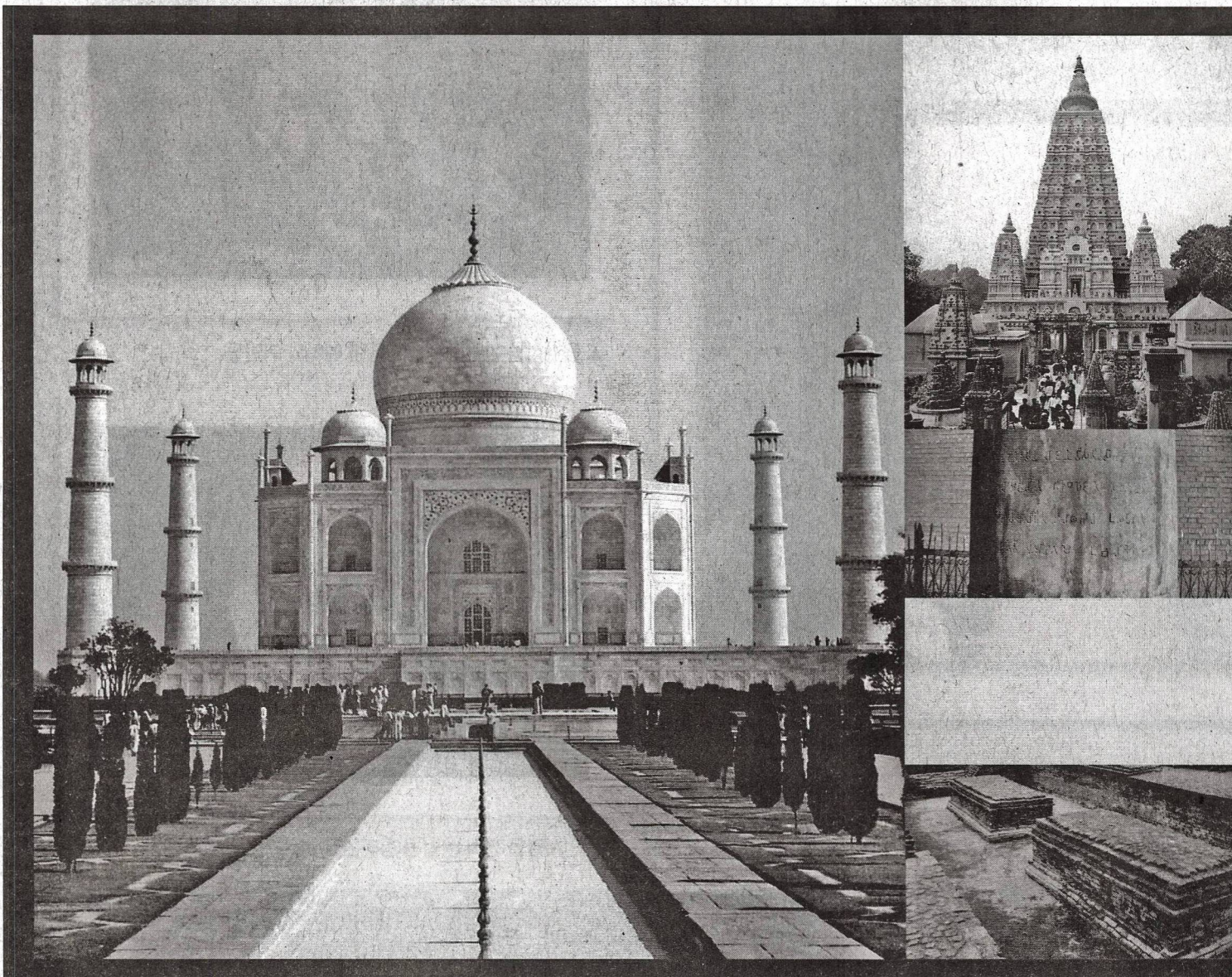
또한 영화는 축구열풍을 통해 성장하는 어린 스님들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욕망으로 들끓던 오기엔은 결승전을 보면서 그 욕망으로 생겨난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욕망이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니마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가장 소중한 회중시계를 잃어야 했고, 상실감에 고통을 받아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기엔은 욕망은 고통과 더불어 다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일체개고(一切皆苦)'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곧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욕계(欲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삶을 이끌어 가는 본질이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 말들은 결국 고통과 욕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욕망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기엔은 축구를 통해서 단순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축구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효과적인 설법이었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영화를 만든 감독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컵>을 만든 키엔체 노르부는 스님이면서 영화감독입니다. 스님일 때는 종사르 켄체 린포체로 불리는데, 그는 부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잠양 키엔체 왕포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라마불교에 대해서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영화, 결과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컵>은 그의 처녀작이지만 아마추어적이지 않습니다. 축구에 빠진 사원이라는 단순한 에피소드에 불교적인 메시지와 티베트의 정치적 현실 등을 조화롭게 버무려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국제영화평론가 협회상을, 토론토 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님이 만들었고, 실제 스님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불교영화, 기대해도 좋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 지 순례

- 순례기간 : 2013년 11월 13일(수)~ 23일(토) (10박 11일) / 부산출 · 도착
- 순례지역 : 인도 & 네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Umbini)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想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살리(Vaishali)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기원정사(祇園精舍)" 스라바스티(Seavasti)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시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道寶階) 산카시아(Sankasia)

"부처님 열반지" 쿠쉬나가르(Kushinagar)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비 : 2,690,000원(변동환을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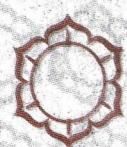
-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교도 가족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12일까지

- 신청 및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정각사 ☎ 051_552_7901

정각사 법상정사 H.P 010_5521_3400

포커스투어 ☎ 051_463_4144 H.P 010_9763_0700



제3회 통일음악예술제

평화를 노래하다

총기42년 9월 28일(토)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영상법어를 전하는 효강 종령예하



▲ 사회를 맡은 서주희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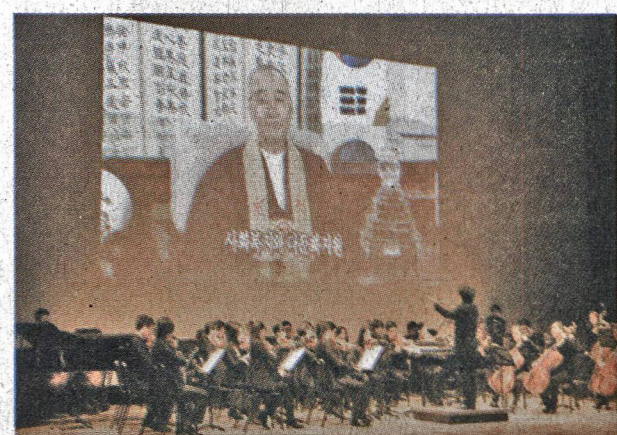
▲ 혼신의 지휘를 다한 김양희



▲ 내빈들과 환담하는 통리원장 법등정사



불교 총지종 통리원이 주관하는 제3회 통일음악 예술제는 세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부처님의 법어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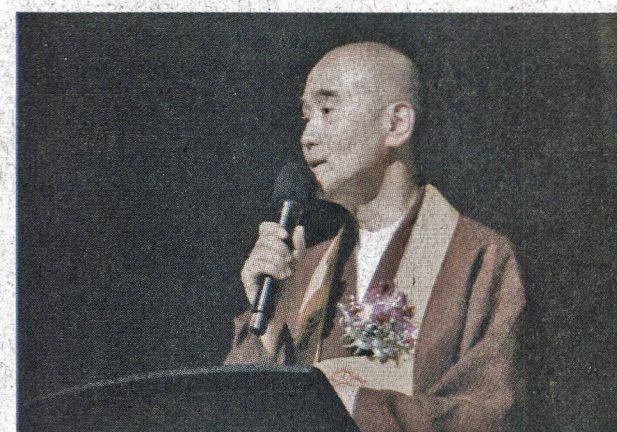
▲ 영상을 통해 총지종의 사회복지 현황을 전하는 통리원장 법등



▲ 찬불가를 부르는 정행 스님



▲ 음악회를 관람하는 효강종령 예하와 귀빈들



▲ 인사말을 전하는 법등 통리원장